

최 인 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1세기초 패션쇼를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전공

이 연 순

21세기초 패션쇼를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

최 인 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메이크업·스타일리스트전공

이 연 순

인 준 서

이연순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2004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시대적 흐름과 예술사조의 변화와 함께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문화적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어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탐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리엔탈리즘이 컬렉션에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세 나라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컬렉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다양한 표현법을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개념과 경향 2000년 이후 패션쇼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을 조사하고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전통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의상, 메이크업, 헤어, 문양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문헌 연구 자료로는 복식사, 미술사, 음악사, 예술사에 관련 서적과 선행 논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패션쇼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법의 분석은 2000년 이후의 컬렉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하였다.

중국, 일본, 인도의 의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후 메이크업과 헤어가 어떻게 도입되어 표현되어 졌는지를 분석했다.

세계 4대 컬렉션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장식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토탈 패션의 개념이 특징화되고 있어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토탈 패션에서 갖는 비중은 그전 시대보다 훨씬 확대되었다.

현대패션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연 친화적 이미지로 동

양의 평면적인 형태와 다양한 색상,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서양미와 조화시켜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패션을 보여 주었다.

21세기후반으로 갈수록 지금까지의 문화보다 더 많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문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오리엔탈리즘이 패션쇼에 표현되어진 방법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New Orientalism이 탄생하기 위한 바람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과의 유용성과 의의를 확인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5
1. 오리엔탈리즘의 개념과 경향	5
2.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 이미지	9
1) 중국	9
(1) 의상	9
(2) 문양	12
(3) 화장	12
(4) 머리모양	14
2) 일본	15
(1) 의상	15
(2) 문양	18
(3) 화장	19
(4) 머리모양	20
3) 인도	21
(1) 의상	21
(2) 문양	25
(3) 화장	25
(4) 머리모양	26
3. 21세기초 패션쇼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27
1) 중국풍	27
2) 일본풍	34
3) 인도풍	40
III. 결론	45

참고 문헌

ABSTRACT

그림 목 차

<그림 1> 중국여성용 치파오	10
<그림 2> 중국 동족의 의상	10
<그림 3> 중국 묘족의 의상	11
<그림 4> 중국 남성용 치파오	11
<그림 5> 화전장식	13
<그림 6> 경극화장	13
<그림 7> 중국의 고계	14
<그림 8> 중국의 양파두	14
<그림 9> 중국의 대립시	14
<그림10> 일본의 여성기모노	15
<그림11> 일본의 십이단	16
<그림12> 일본의 남성 기모노	17
<그림13> 일본의 자연문양	18
<그림14> 일본의 기하학적 문양	18
<그림15> 일본의 가부끼 화장	19
<그림16> 일본의 형곡	20
<그림17> 일본의 하곡	20
<그림18> 무굴제국 의상	21
<그림19> 인도의 사리	22
<그림20> 인도의 두파타	23
<그림21> 인도 도티	24
<그림22> 페이스리문양	25
<그림23> 망고문양	25
<그림24> 알렉산더 맥퀸, 2003, (www.firstview.com)	27
<그림25> 미우미우, 2003, (www.firstview.com)	28
<그림26> 미우미우, 2003, (www.firstview.com)	28
<그림27> 발망, 2003, (www.firstview.com)	29
<그림28> 로베르토 카발리, 2003,(www.firstview.com)	30
<그림29> 로베르토 카발리, 2003,(www.firstview.com)	31
<그림30> 안드류 쥐엔, 2003, (www.Dongatv.com)	31
<그림31> 존갈리아노, 2003, (www.firstview.com)	32
<그림32> 블루마린, 2003, (www.firstview.com)	33

<그림33> 블루마린, 2003, (www.firstview.com)	33
<그림34> 크리스찬 디올, 2003, (www.Dongatv.com)	34
<그림35> 드리스 반 노트, 2002, (www.firstview.com)	35
<그림36> 블루마린, 2003, (www.firstview.com)	35
<그림37> 블루마린, 2003, (www.firstview.com)	35
<그림38> 도나카란, 2003,(www.firstview.com)	36
<그림39> 장 카샤렐, 2001, (www.firstview.com)	37
<그림40> 구찌, 2003, (www.firstview.com)	38
<그림41> 코시노, 2000, (www.firstview.com)	39
<그림42> 키모노, 2003, (www.firstview.com)	40
<그림43> 키모노, 2003, (www.firstview.com)	40
<그림44> 존 갈리아노, 2003, (http://:www.Dongatv.com)	41
<그림45> 클로에, 2003, (www.firstview.com)	42
<그림46> 드리스 반 노트, 2003, (www.firstview.com)	43
<그림47> 셀린느, 2003, (www.Dongatv.com)	44

I. 서론

21세기는 기계화 시대이면서 정보화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많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장르가 패션이다.

패션은 문화이면서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의·식·주 중의 하나이기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패션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면 그 시대 사회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한 나라의 전통과 민족성 또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동양적인 패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의상에 모티브를 두고 있다.¹⁾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용어에 내포된 오리엔트(Orient)는 라틴어의 오리엔스(Oriens)가 그 어원으로 일출, 해가 뜨는 방향, 동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을 오리엔트(Orient)라 불렀고 반대 서방을 옥시덴스(Occidens)라 불렀다. 그러나 동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범위는 점점 넓어져 터키 동쪽의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말한다.²⁾

오래전부터 동·서양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갖게 되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 의해 다른 문화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위기감의 해결 방안으로 동양적 사고방식이 크게 주목받게 되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 이재성,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민속사, 1994), p.201.

2) 윤명자, “현대패션의 오리엔탈리즘”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p.2.

기원전 2세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교역이 활발해지면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십자군 전쟁은 중동의 이슬람 문화, 자수(아플리케), 염료 등이 서방에 전래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³⁾

17세기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으로 중국의 도자기와 인도 복식의 세부 장식과 그림 등이 소개되었다.⁴⁾

18세기경부터 시누아즈리(Chinoiserie, 중국취미)가 유행했으며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서 직물을 수입해 음으로서 복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세기에 들어와 회화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을 이국취미 이상으로 승화시켰는데 낭만주의 화가인 프랑스의 들라크루아(Eugene Delacroix, 1798~1863)와 신 고전주의자였던 앵그르(Ingres Jean Auguste Dominique, 1780~1867)까지도 동방적인 주제의 명작을 그렸다.⁵⁾

20세기 전환기에 예술분야에는 감각적인 곡선과 동·식물 motif를 특징으로 하는 아르누보(Art-Nouveau)⁶⁾와 기하학적인 형태와 꽃이나 동물, 인간의 형체를 모티브로 한 아르데코(Art-Deco)⁷⁾가 나타났으며 모든 조형 분야에 적용되었다.

이 영향을 받은 폴 푸와레(Paul Poiret, 1879~1944)는 20세기 초에 동양복식을 바탕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선보였고 단순히 기독교 문화에 속한 서구인들에게는 동양취미의 수준으로 여겨졌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동양의 심오한 정신세계에 대

3) 정홍숙, “서양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89.

4)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0), p.17.

5) 텅킨 히스, 「낭만주의」, 이수명 역 (서울: 김영사, 2002), p.158.

6)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유럽 및 미국에서 유행한 장식 양식으로 역사적인 양식을 부정하고 자연형태에서 모티브를 빌려 새로운 양식을 표현하고자 했다.

7) 아르 데코라티프(Art de Coratif:장식예술)의 약칭이며 ‘1925년 양식’이라고도 한다. 기본 형태의 반복, 동심원, 지그재그 등 기하학적인 것에 대한 취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한 탐구까지 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외교정책, 중국의 문호개방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졌으며 현대에 와서는 패션 디자인은 물론 건축, 인테리어, 가구, 영화, 광고 등 예술과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중요한 모티브로 나타나고 있다.⁸⁾

패션쇼에 표현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을 대표하는 세 나라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펴보면,

첫째, 중국은 전통의상인 치파오가 있고 대표적인 화장으로는 경극에 표현되어지는 화장법이 있으며 머리는 정수리 부분까지 높이 올리는 고계가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문양으로는 용과 봉황 문양 등이 있다.

둘째, 일본은 전통 의상인 기모노가 있고 대표적인 화장으로는 가부끼 화장법에 나타난 구마도리가 있고 머리모양은 올림머리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양으로는 벚꽃, 새와 매화 등 자연 문양이 많다.

셋째, 인도는 전통의상인 사리와 초리가 있고 대표적 화장으로는 눈 주위를 검은 색으로 칠해서 표현하고 이마에 홍점을 그리기도 하며 머리모양은 하나로 묶거나 길게 땀아 늘어뜨린다.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페이즐리 문양과 망고 문양이 있다.

서양패션디자이너들은 동양의 의복형태를 현대패션과 접목시켜 전통과 민족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크업이나 헤어는 그 자체만으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제한된 동양풍의 제한된 테마에만 맞추어 표현되고 있진 않다. 즉 다양한 동기, 이미지 확장 등 그 내용이나 상징성에 있어 현대적이고 한 차원 상승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⁹⁾

그러므로 의상의 다양한 변화에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오리엔탈리즘을 표

8) 임영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vol, 30, 1996), p.75.

9) David Band, 「20세기 패션」, 정현숙 역 (서울: 경춘사, 1992), p.276.

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보고 서양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통해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오리엔탈리즘의 개념과 배경을 알아 보기위해서 복식사, 미술사, 음악사, 예술사 등 문헌을 분석하여 요약 정리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상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 후에 메이크업과 헤어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 표현되어졌는지를 분석 정리했다.

사진 자료 중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 이미지 사진을 각종 문헌 자료와 잡지,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패션쇼 사진은 세계4대 컬렉션¹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COLLECTION, GAP PRET-A-PORTER, BOOK MODA 등의 패션 전문잡지와 동아TV와 FIRSTVIEW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10) 세계 4대 컬렉션은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컬렉션을 칭하며 일년에 두 번 S/S, F/W로 개최된다.

II. 본 론

1. 오리엔탈리즘의 개념과 경향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용어에 내포된 오리엔트(Orient)는 라틴어의 오리엔스(Oriens)가 그 어원으로 일출, 해가 뜨는 방향, 동방 의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을 오리엔트(Orient)라 불렀고 반대 서방을 옥시덴스(Occidens)라 불렀다. 그러나 동방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면서 범위는 점점 넓어져 터키 동쪽의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하고 있다.¹¹⁾

이 오리엔탈리즘은 근세 유럽에 있어서 문학, 예술상의 한 풍조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Exoticism)를 말한다.

오리엔탈리즘이 학계에 관심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Edward W.Said(1935~)가 1978년 '오리엔탈리즘'을 출판하면서부터이다. 동양은 유럽에 인접되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럽 문명과 언어의 연원이었으며 유럽 문화의 호적수였고 또 유럽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반복되어 나타나는 타인의 이미지이기도 했다.¹²⁾

그러나 오늘날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단지 취미와 흥미만으로 여기거나 지배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동양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고 동양의 가치관, 문화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1)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고대 실크로드의 문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p.3.

12)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1997), p.13.

오리엔탈리즘은 세계 각국의 복합된 문화표출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¹³⁾의 절충적 성향과 디자이너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의 보석, 면, 소량의 중국 실크가 전파되었고 비잔틴 시대에는 동·서양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와 동양적인 신비감을 합친 미술로서 건축에 돔(Dome)양식 사용한 성 소피아 대성당과 성 마르크 대성당이 있다.

또 십자군 전쟁은 중동의 이슬람 문화, 자수(아플리케), 진보된 직조 기술, 염료 등이 서방에 전래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17세기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으로 중국식 가운, 일본이나 중국의 화려한 도기와 인도 복식의 세부 장식과 그림 등이 소개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이후로 유럽 각지의 상류 계급 사이에 이국취향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중국풍, 터키풍 등이 예술 전반의 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풍의 유행은 복식, 건축, 조각, 회화,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유행하게 되었고 이를 시누아즈리(Chinoiserie:중국취미)라 불렀다.¹⁴⁾

19세기에 들어와 회화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을 이국취미 이상으로 승화시킨 낭만주의 화가인 프랑스의 들라크루와(Eugene Delacroix,1798~1863)가 있다. 그는 모로코 여행을 통해 근동지방의 강한 색채와 풍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는 동시에 낭만주의 회화에서의 동방취미 풍속화의 기반을 닦았다. 명작 '알제의 여인들'은 이 여행에서 얻은 훌륭한 성과였다. 신고전주의자 였던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1780~1867)까지도 '오

13) 1960년대 일어난 문화운동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14) 김윤희, Op.Cit., p.17.

달리스크', 터키 목욕탕'과 같은 동방적인 주제의 명작을 그렸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이행되면서 예술분야에서는 모던 아트 (Modern-Art)가 시작되었는데 이 모던 아트의 표현 경향은 모든 예술 영역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유럽에서는 아르누보(Art-Nouveau)가 나타났는데 이는 감각적인 곡선과 동·식물 motif를 특징으로 하는 독창적인 장식 예술이었다.

아르누보의 구조상 특징의 하나인 비대칭구조(Asymmetric design)는 1890년대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가 호타(Victor Horta,1861~1947)가 일본의 건축양식에서 사선으로 곡선의 효과를 살리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좌우대칭의 디자인 원칙이 깨어졌다.¹⁵⁾

아르누보의 모든 조형 분야에 적용되었으며 국제적인 장식 예술의 성격이 새로이 대두되었으며 디자인 분야를 예술 영역으로 확립시켰다.

아르누보에 영향을 준 동양 느낌의 조형예술 분야들이 아르데코(Art-Deco)로 연결되었다. 특징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꽃이나 동물 및 인간의 형체를 모티브로 한 형태이다. 색채는 강렬하고 밝은 색조로 강하고 단순한 형상을 적절히 표출하기 위해서 밝은 색상과 뚜렷한 색채 대비를 구사하는데 검정과 빨강 그리고 은색은 이 양식의 전형적인 색채 조합으로 빨강과 검정은 기하학적 형태들의 배경을 마련하고 은색은 주로 주요장면을 위해 사용하였다.

오리엔탈리즘은 조형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음악에도 표현되었다.

동·서양의 교류 역사와 바퀴를 같이 하며 서양음악은 늘 동양적 요소를 유입해 왔다. 동양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고전 낭만시대에는 단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흉내내는데 그쳤으나 조성음악¹⁶⁾이 무조음악¹⁷⁾으로 바뀌려는 과도기인 낭만

15) Peter Selz&Mildred Constantine, Art-Nouveau, (NewYok: The museum of Modern Art, 1998), p.14.

16) 음악에서 으뜸음에 의하여 질서와 통일을 가지게 되는 여러 음악의 체계적 현상

17) 조성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조와는 다른 구성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음악이다.

후기와 현대 초기에는 동양적 기법을 직접 도입하므로써 불안한 조성음악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20세기 이후의 미국은 동양적 사상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표적인 음악으로는 모차르트(Mozart Wolfgang Amadeus 1756~1791)의 터키 행진곡, 립스키 코르샤코프(Rimsky Korsakov,1844~1908)의 인도의 노래, 드뷔시(Achille Claude Debussy,1862~1918)의 아라베스크¹⁸⁾ 등이 있다.

19세기 잠재적인 형태로 등장했던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에 들어와 명백한 접근방식을 보이며 사회, 문화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복식 디자인에 있어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었으며 동양 복식의 다양한 색감과 구성, 기하학적 단순성 등은 현대 복식을 창조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Paul Poiret(1879~1944)의 등장은 모드(Mode)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주었다. 그는 터키풀 하렘(Harem) 팬츠와 터번(Turban), 중국풍의 코트, 기모노풍의 튜닉 스타일 등을 디자인하여 이 시대를 특징짓는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전 유럽에 이국적 취미와 호화취미를 유행시켰다.

9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온 오리엔탈리즘은 2000년대 들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풍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했다. 또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졌으며 실생활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영화 '마지막 황제'(The Last Emperor), '춤추는 무뚜', '화양연화'에 나타는 동양풍의 의상이나 신비로운 칼라와 소재들은 서구인들에게 동양에 대한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2003년 S/S컬렉션에서는 WTO 가입을 계기로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중국풍 의상이 화두로 떠올랐으며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오리엔탈풍이 표현되었다.

오리엔탈리즘은 회화, 건축,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와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 음악에서 아라베스크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내용의 악곡을 말한다.

2.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 이미지

오리엔탈리즘이 연상되는 대표적인 세 나라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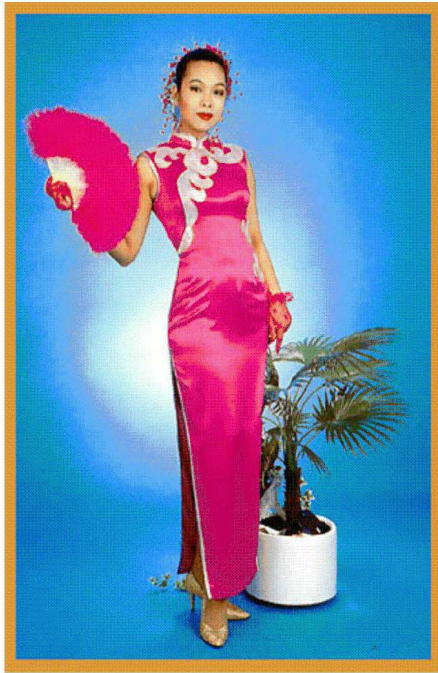
(1) 의상

중국 복식의 기본적인 형식의 토대인 상의하상이나 상하가 붙어 있는 복식은 진나라 설립시기부터 만들어졌다. 이후에도 다양한 통치왕조의 교체를 통해 복식의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1912년 청왕조¹⁹⁾는 강제적으로 복식을 착용하게 하였고 오늘날의 중국 전통복식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깃, 소매, 앞여밈이 조금씩 변화되어 현재의 스탠드 칼라(stand collar), 차이니즈 칼라(chinese collar) 또는 만다린 칼라(mandarin collar) 와 사선 여밈으로 정착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속의상 치파오(Qipao)²⁰⁾는 청나라 때 유래된 남녀 공용의 전통복식이다.

여성용 치파오는 몸에 꼭 맞는 원피스 형태이다. 길이는 발목 또는 무릎까지 다양하며 소매도 있거나 없게 하여 맵시를 보인다. 칼라는 차이니즈 칼라이며 디자인을 넣어 체형의 곡선을 살린 원피스형 드레스로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보행시 불편을 막기 위해 스커트의 양 솔기를 텃고 목선에서 어깨, 겨드랑이로 이어지는 트임을 매듭단추로 여며 장식의 효과도 있고 화려한 자수 장식도 있다. 하의에는 바지를 입기도 했다.

19) 의상디자인연구회, 「세계 민속의상과 패션」 (서울: 문학사, 1992), p.20.

20) 황춘섭, 「세계 전통 복식」 (서울: 수학사, 1997), pp.155-156.



<그림1> 치파오,
<http://www.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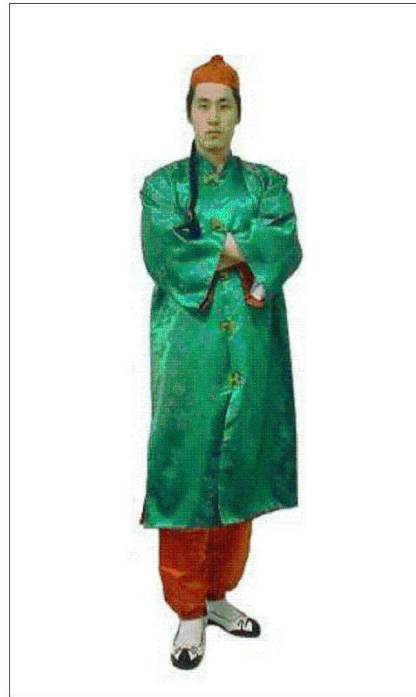
<그림 2> 사진으로 보는 중국민족의 생활,
 서울언론인클럽, p.105.

여기에 남부지방 소수 민족인 동족(侗族)의 여성들은 <그림2>와 같이 검은 바지에 엉덩이 길이의 재킷을 입고 자수 놓인 허리 벨트를 매고 흰색 양말과 붉은색 샌들을 신었다.²¹⁾

21) 의상디자인연구회, Op. Cit., p.25.



<그림 3> 사진으로 보는 중국민족의 생활,
서울언론인클럽, p.107



<그림4>남성용 치파오,
<http://www.naver.com>.

또 하나의 민족인 묘족(苗族)의 여성은 <그림3>과 같이 짧은 무릎 밑 길이의 바지와 짧은 검정 치마와 밤색 또는 색상 있는 재킷을 받쳐 입었으며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는 수놓인 앞치마를 둘렀다.

남성용 치파오는 하나의 스타일로 일자형 바지 위에 원통형의 H라인에 무릎까지 길이, 만다린 칼라를 한 만다린 룩이 <그림4>이다. 만다린 룩은 화려한 색상과 기능적 형태에 특징이 있고 관모와 장식 등에 의해 착용자의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노동자들이 즐겨 입던 쿨리타입의 슈트가 있는데 면 소재로 만든 모택동 바지와 재킷을 입었고 머리에는 대나무, 야자수, 밀짚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든 쿨리햇(Coolie hat)을 썼다.

대도시에서는 보통 청색이나 회색의 긴 소매 상의와 바지를 입는데 겨울에는

숨을 넣어 입었다.

남부지방 소수민족들의 남성들은 다양한 길이의 재킷과 짧지만 여유 있는 바지를 입고 색깔 있는 허리띠를 맸다.

중국의 대표적 특산물인 실크는 의복의 화려함을 더해 주었고 중국의 상징인 붉은색은 행운, 위엄, 결혼의 이미지가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2) 문양

중국의 대표적인 문양인 용문과 봉황, 거북, 기린 무늬는 각각 계절과 시각, 방위 등을 담당하는 문양이다. 특히 용무늬는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했고 봉황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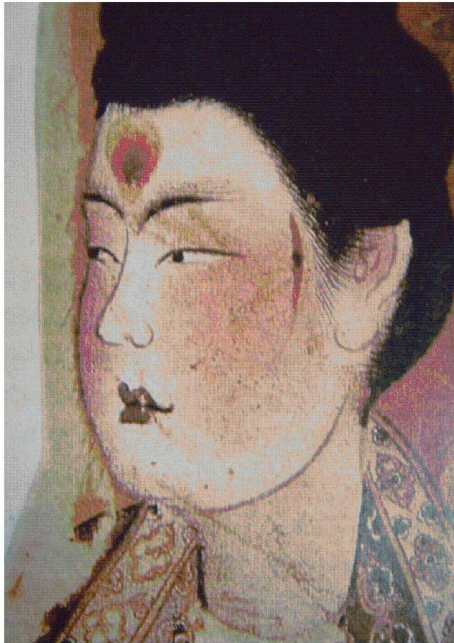
동물 문양뿐 아니라 줄기, 잎, 뿌리가 달려 있는 꽃송이와 담쟁이 덩굴이 있으며 '죽의 장막' 이라고 불리며 중국을 상징하는 대나무 문양 등이 있다.

(3) 화장

중국의 전통적인 부녀자들의 화장은 화전이 있다. 화전은<그림5>와 같이 황색 안료 즉 액황을 이마에 칠하는 것으로 꽃잎의 형상에서 우각(牛角), 복숭아도(桃)자 모양과 추상적인 도안(翠鈿)까지 다양하게 붙이는 풍습도 형성되었다.

또한 손톱화장은 섬세한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즐겼으며 붉은색을 태양의 색, 피의 색, 신성한 색으로 가장 좋아하였다. 얼굴은 밀가루처럼 희게 입술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비취빛이나 검은빛의 눈썹을 그렸다.

22) 한국문화보호재단, 「한국의 무늬」 (서울: 예맥출판사, 1996), p.116.



<그림5> 중국의 화진 장식, 추린 중국 미술의 역사, 마쯔이사브르, 1998, p.121.



<그림 6> 중국 경극화장, Decorated Skin, Kari Groning, 2002, p.201.

중국을 대표하는 화장법으로는 무대용 페인트를 이용한 경극 화장이 있는데 이를 응용하여 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작고 오무린 듯한 붉은 입술, 볼 전체에 붉은 볼 화장, 짙은 검은 눈썹을 <그림6>과 같이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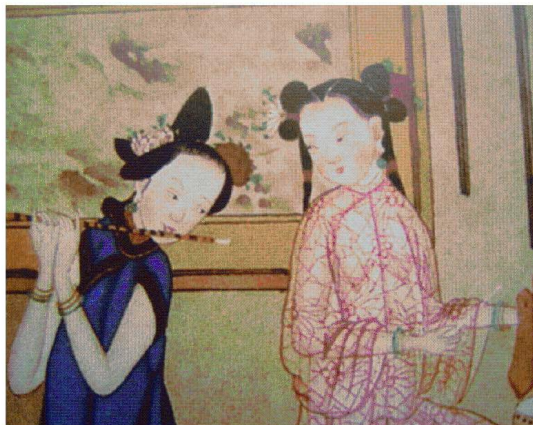
90년대 이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구매욕구가 늘어나게 되자 이를 인지한 패션디자이너들은 중국패션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시도 하였고 각종 컬렉션에 등장하는 차이니즘의 붉은 기운은 중국으로부터 여감을 얻은 작품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메이크업 칼라라고 할 수 있다.²³⁾

23) 정현숙, Op.Cit., p.129.

(4) 머리모양



<그림 7> 중국의 고계, 중국의 성문화사, 류다린, 2003, p.292.



<그림 8> 양파두, 중국의 성문화사, 류다린, 2003, p.230.



<그림 9> 대립시, 중국성풍속사, R. H. 반홀릭, 1993, p.153.

중국의 대표적인 머리형태는 높게 올린 고계인<그림7>과 양쪽으로 갈라서 묶은 쌍계머리와 양쪽으로 갈라서 상투머리를 틀어 올린 양파두<그림8> 또는 아치모양의 가발위로 꽃송이를 장식한 대립시<그림9>과 또아리를 틀어 평평하게 높

게 올린 스타일 등이 있었다. 결혼 후에는 땀은 머리를 머리위에 틀어 등글게 감아서 두개의 상아비녀²⁴⁾로 고정 시켰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형태적인 특징을 많이 응용하고 있는 것은 치파오의 타이트한 실루엣과 허벅지까지의 옆트임, 만다린칼라에 매듭 단추와 쿨리헛이 있고 중국을 대표하는 경극의 화장법인 짙은 눈썹과 하얀 얼굴과 붉은색 색감 등이 패션쇼에 많이 등장한다.

2) 일본

(1) 의상

고대시기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문화를 그대로 이어온 일본복식은 중세시기 헤이안(平安), 카마쿠라(鎌倉), 무로마치시대(室町)에 이르러 일본풍 복식으로 확립되었다. 현재 전통의상으로 간주되는 복식은 에도시대(A.D.1603~1876)의 복식이 현대로 이어져 내려 온 것이다.²⁵⁾



<그림10>일본 여성의 기모노,
<http://www.wasou.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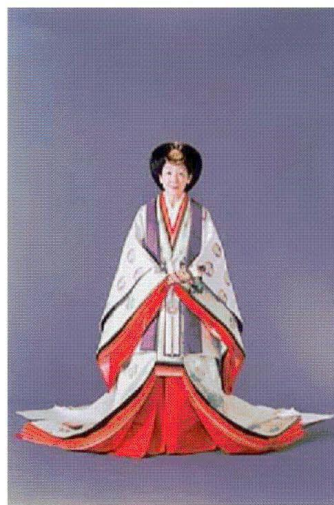
24) 중국복식 5000년, 손경자 역 (서울: 경춘사, 1995), p.414.

25) 의상디자인 연구회, Op.Cit., p.31.

일본의 대표적인 의상은 기모노(きもの)인 <그림10>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는 직선적으로 재봉하여 품에 여유가 있고 앞이 트여 있고 좌우 포개어 여미게 되는 전개형(caftan)이다.

여밌도구로는 오비(おび)가 있는데 이것을 허리에 두르고 오비지메(おび-じめ)라는 끈을 매어 정리하는 것이 특징이다.²⁶⁾

일본여성의 전통 복식으로는 나가기, 하오리, 유카다, 히후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용 나가기는 옷 길이를 신장과 같은 길이로 만들어 입을때 허리에 접어 질러 오비로 고정시킨다. 하오리는 나가기 위에 덧입는 것이며 품에 여유를 주기 위해 양옆에 다른 천을 대고 서양풍을 본뜬 깃을 앞길 겉쪽으로 접었으며 가슴에 끈을 달아서 맨다. 유카다²⁷⁾는 면으로 만든 홑겹 기모노인데 여름 축제나 온천에서 착용한다. 히후는 외출복으로 착용하는데 하오리 위에 입기 때문에 길이를 5cm 더 길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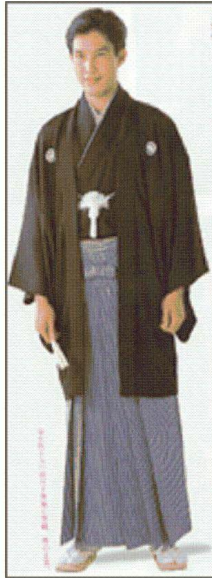


<그림11>십이단,
<http://www.wasou.or.jp>

26) 팍태기·김은정, “중국·일본·한국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토털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목식학회지, 제52권 5호), p.110.

27) 김미화, 「디카 해외여행 시리즈 가자! 세계로 japan」 (서울: 문화사, 2000), p36.

또 십이단(十二單)이라는<그림11>과 같은 헤이안 시대의 여성정장은 여러 겹으로 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깃, 수구, 옷자락 등의 색채배합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거기에 자수를 곁드려서 색채효과를 높였다.²⁸⁾



<그림12>일본 남성의 기모노,
<http://www.wasou.or.jp>

일본 남성 전통복식인 <그림12>은 나가기, 하오리, 하카마, 유카다, 단쟁으로 구성된다. 나가기는 남녀가 함께 입는 주요 겹옷으로 보통 나비의 천을 직사각형으로 재단하여 목이 들어갈 만한 깃고대를 파고 어깨로부터 앞뒤로 늘어뜨려 길이를 삼고 천을 팔의 앞뒤로 늘어뜨려 소매 삼아 배래²⁹⁾를 꿰매고 앞뒷길에 소매를 붙인다.

하카마는 남자의 예장복으로 품이 넓은 바지를 말한다. 유카다는 목욕 후 입던 옷이 였으나 지금은 여름에 입는 옷으로 남녀의 편안한 실내복으로 많이 착용한다. 단쟁은 겨울용으로 두꺼운 나가기라고 보면 된다.

28) 임복임,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 한국,중국,일본의 자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3), p.48.

29) 한복의 옷소매 아래쪽에 물고기의 배처럼 불룩하게 둥글린 부분.

일본 의상은 형태가 일정해서 소재, 빛깔, 무늬 등으로 개성을 나타내고 염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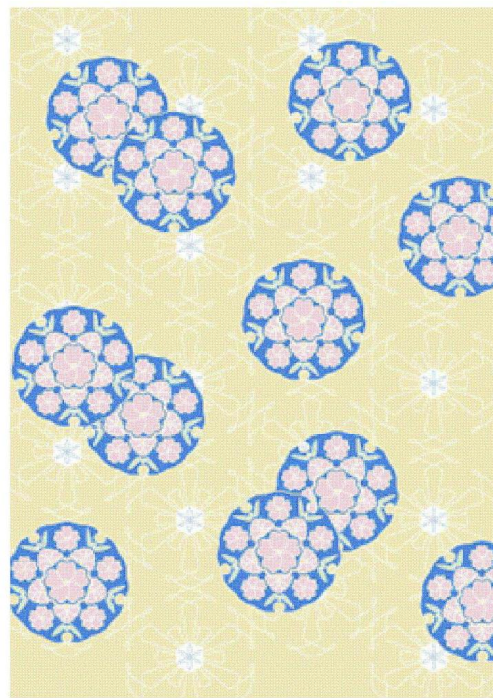
일본의 전통적인 신발에는 다비, 조리, 게다 등이 있는데 다비는 순백색 버선으로 엄지 발가락을 나머지 네 발가락과 분리시켜 신는 것이다. 조리는 샌들로 형질, 가죽, 비닐 등의 소재로 만들어 진다. 게다는 나무 샌들로 일반적이며 패션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

(2) 문양

일본의 전통적인 문양은 벚꽃, 화초 문, 난초 문, 매화 문, 바닷결 무늬 등 자연적인 문양인<그림13>과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자연적인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여 연속적으로 표현한 <그림14>과 같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13>기하학적무늬,
<http://www.wasou.or.jp>



<그림14>자연적인 무늬
<http://www.wasou.or.jp>

(3) 화장

일본을 대표하는 화장술로는 일본전통 무대극 가부키를 들 수 있다. 에도시대 부터 약 4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가부키는 에도시대 이전의 인물로 분장하여 특이한 의상을 입고 당대에 유행하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종합예술이다. 유성 염료로 붉은색이나 파랑색의 줄무늬를 그려 배역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씩씩하고 선량한 사람, 영웅 강자는 붉은색으로 악인, 유령은 푸른색으로 표현한다. 이 유형화된 화장법은 구마도리³⁰⁾라 하며 가부키 연출의 중요한 기법이 <그림15>이다.

두껍고 하얀 피부표현과 눈꺼풀 전체를 도색할 만큼 두껍게 그린 아이새도와 초승달 모양의 작은 눈썹, 검정으로 진하게 그려 붉은색으로 끝을 약간 올려 강조한 눈꼬리, 작은 앵두 모양의 인커브 입술이 특징적이다.

당대부녀자들은 하얀 피부를 숭상하였으며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을 미의 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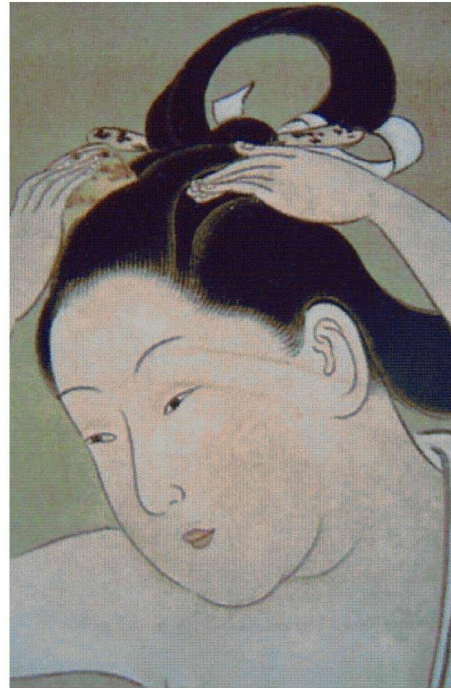
<그림 15>가부키 화장, Decorated Skin,Kari Groning, 2002, p.217.

30)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p.74.

(4) 머리모양



<그림 16>일본의 형곡
<http://www.naver.com>



<그림 17>일본의 하곡, 에도시대의
미술, 크리스틴구스, 2004, p.181.

17세기 후반기부터 일본의 여인들은 양쪽으로 땡는 머리를 하든지 반머리(일부 머리를 묶어서 정리해주는 머리 형태)를 하여 반머리와 흘러 내려온 머리 형태를 이루고 있다.³¹⁾

대표적인 스타일에는 형곡(形鬘)과 하곡(下鬘)이 있는데 <그림16 >과 같이 형곡은 일본 전통결혼식인 환곡스타일의 변형으로 층층이 머리와 장식품을 사용했다.

하곡인<그림17>은 부분머리는 상투머리형으로 묶어 주고 나머지 머리는 자연스럽게 길게 흘러 내리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이다.

일본 남성의 대표적인 전통 머리 모양은 전통 무사의 머리인 상투머리가 있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속의상인 기모노는 직선재단과 박스형 실루엣, 오비와 오비지메로 여미는 형태가 특징이고 전통 무대극인 가부끼에 표현되어 지고 있는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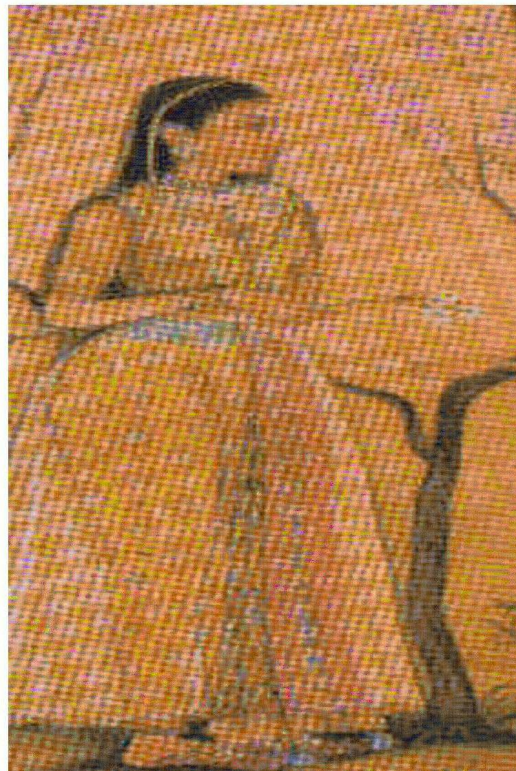
31) 콧대기 · 김은정, Op.Cit., pp.115-116.

장법인 흰 피부에 반달형 눈썹과 꽃잎형 입술이 화장의 특징이다. 헤어스타일에는 다양한 올림 머리 형식이 있고 문양으로는 벚꽃, 매화, 새, 등 자연 문양과 자연문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문양 등이 있다. 현대 패션쇼에서는 이런 일본의 전통적인 이미지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3) 인도

(1)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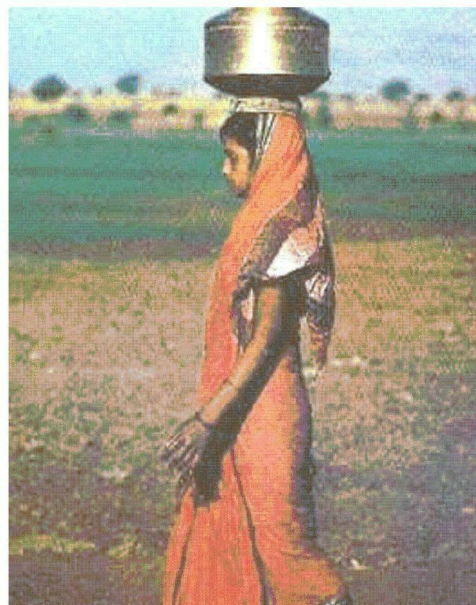
인도 복식의 제일 큰 특징은 기원전 1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16세기에 인도를 정복한 무굴(Mughul)의 페르시아풍 궁중복인 <그림18> 현대 인도 의복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그림 18> 무굴제국의 의상, 무굴제국, 발레리 베린스탱, 2001, p.25.

초기의 인도 여성의 의복 형태는 요의, 가슴가리개, 스카프나 솔(shawl)등이 있는데 요의는 다양한 형태의 도티(dhoti)로 발전 했고 가슴가리개는 상의나 초리(choli)로 변했고 스카프나 솔은 여성에게는 베일이고 남성에게는 터번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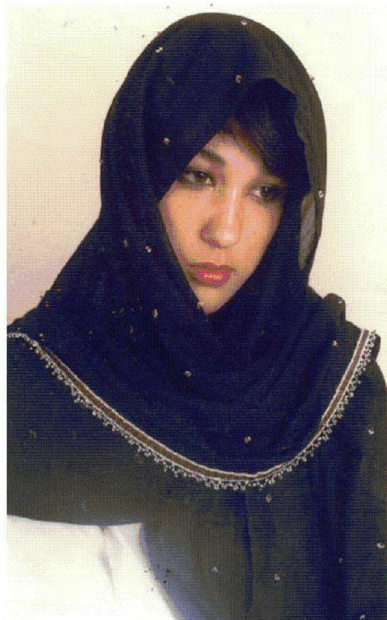
인도 여성의 복장은 사리(sari)라고 하는 패턴의 풍성한 원단을 봉재선 없이 걸쳐 입는 드레이퍼리(drapery)형의 <그림19>과 같은 의복이 있다. 전형적인 사리는 5.5m의 길이에 폭이 1m~1.5m인 천을 하반신에 3~4회 감아 허리에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천을 어깨에 걸치거나 앞으로 늘어뜨린다. 사리는 포멀형과 캐주얼형이 있는데 명주에 금과 은실을 사용한 것이 포멀형이고 나이론(nylon), 트리코트(tricot), 조젯(georgette), 목면 등의 무늬 프린트 제품인 캐주얼형이 있다.³²⁾



<그림 19>인도의 사리,
<http://www.naver.com>

32) 의상디자인연구회, Op.Cit.,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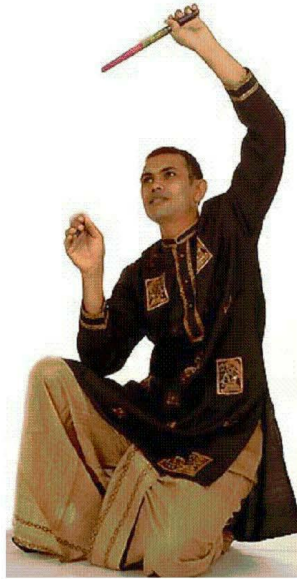
사리를 두르기전에 하의는 속치마를 입고 상의에는 초리를 입는다. 여성들도 남성들이 즐겨 입던 도티라고 하는 폭 넓은 천을 하반신에 감고 허리에 벨트를 하고 입으며 입는 방법에 따라 상반신 노출을 시키기도 한다. 여기에 사리를 허리와 다리를 감싸고 양어깨에 걸고 가슴과 등 뒤로 보내거나 머리에 덮어쓰기도 하며 두파타(dupatta)인 <그림20>라고 하는 술을 상반신을 감싸기도 한다. 술은 5m~8m의 길이에 폭은 1m로 걸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북인도에서는 일반적인 것은 뒤로부터 하반신으로 감아서 앞을 지나 어깨에 걸쳐 등 뒤로 걸친다.



<그림 20>인도의 두파타,
<http://www.in.yahoo.com>

또 주름이 많은 가그라(ghagra)라는 겉옷이 있는데 이것은 바느질한 옷으로 펼치면 도너츠 모양이 되는 개더 스커트(gather skirt)형태의 큰 치마이며 보통의 가그라에는 화려한 자수를 놓고 발목이나 종아리 중간 정도 길이로 착용한다. 가그라 위에 초리를 입고 머리에는 폭 1.8m,길이 2.2m 의 오드니(odhni)를 쓴다. 오드니는 오르나(orhna)라고도 하며 폭이나 길이가 사리보다 훨씬 좁고 짧은 것

으로 여러 가지 화려한 색채의 실크나 무명 오간디(organdy)등으로 만든다



<그림21>인도의 도티,
<http://www.in.yahoo.com>

인도 남성의 전통적인 복장으로 도티(dhoti)인<그림21 >가 있는데 14세기까지는 남녀 공용의 것이 였으나 여성의 것이 길어지고 어깨를 장식하게 되자 사리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도티는 3~5m 가량의 가벼운 목면의 포를 뒤에서부터 몸을 감싸고 왼쪽 반쪽을 다시 뒤로 고정시켜 오른쪽 반쪽을 어깨나 손에 걸치기도 하는데 지방마다 착용법이 조금씩 다르다.

북인도에서는 타이트한 바지를 파자마(pajama)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바지에는 샤르와르(shalwar)와 주디다르(chudidar)로 구분된다. 샤르와르는 터어키식 하렘바지의 변형으로 허리에서 다리까지의 길이는 많은 주름이 생기는 자주 형태로 일반적으로 허리둘레의 폭이 바지보다 길다. 주디다르는 허리에서 무릎까지는 넓지만 그 밑의 종아리에 타이트하게 붙어 복사뼈 부근에서 수평으로 주름이 잡힌 형태의 바지인데 명칭은 복사뼈에서 나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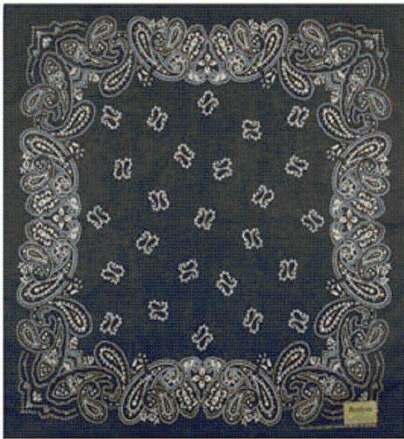
또 농민의 노동복으로 허리부분에 두르는 룬지(lungi)라는 것이 있으며 도티와

론지의 상의로는 직선 소매에 칼라가 없이 목을 감싸고 단추는 여미는 셔츠 모양의 것을 입는데 이는 하층의 유일한 걸옷이다.

인도인들은 붉은색과 금색을 함께 사용했으며 붉은색이 행운의 색으로 상징되고 있다.

(2) 문양

인도 역시 자연적이고 토속적인문양을 기본으로 하는데 솔방울 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모티브로한 페이즐리 문양<그림22>과 망고 문양<그림23>이 있다.



<그림 22>페이즐리문양,
<http://www.yahoo.com>



<그림 23>망고문양,
<http://www.yahoo.com>

(3) 화장

인도의 화장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인더스 문명의 유물 중에서 화장 도구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라마릴라(Ramalila)지방³³⁾의 축제인 라마의 날 행사에 신으로 분장하는 소년의 이마에는 비쉬누(vishnu)의 표시를 하고 안티몬으로 검게 칠했는데 이 안티몬의 유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바람이나 곤충, 모래,

33) 안현경·이귀영, 「20세기 미용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한국미용학회지 제3권 제 1호, 1997), p.105.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눈가에 칠하던 것이다. 안티몬과 비슷한 검정색 원료로는 Kohl³⁴)이 있다.

인도 여성의 이마에 홍점은 샌더(sander)³⁵)혹은 (Kum-Ku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바의 힘과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혼한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사용했으며 이를 행복의 상징이라 여겼다.

결혼식 때는 매우 화려해서 헤나(henna), 나드(nath)³⁶), 카티아(katia)³⁷)를 하고 이마에는 찬드비나(cand-bina)³⁸) 혹은 싱카(shinka)³⁹)를 하고 점을 찍는다.

그리고 피부는 부드럽고 윤이 나게 하기 위해 기름과 분을 얼굴에 발랐다.

(4) 머리모양

머리에는 야자유나 호두유로 광택을 내고 뒤에서 하나도 묶든가 길게 땀아 내렸다. 장식은 진주와 자수를 조화롭게 사용한 장식띠, 직물로 만든띠 그리고 금속제로 만든 띠도 많이 사용했다. 기혼자는 하나로 묶은 머리 한가운데 작은 장식물을 꽂았다. 오드니나 스카프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렸다.

남자는 머리장식으로 터번을 감았다. 감는 방법은 귀족, 시대 계급에 따라 다양하고 공통적으로 튜올립 모양으로 말아 올렸다. 색상과 소재의 폭 넓고 감는 법이 다양한 터번은 현대복식에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이나 액센트로 많이 등장했다. 기능적이면서도 장식적인 효과가 큰 터번은 80년대 유행적인 라인을 특징으로 하는 엘레강스한 모드의 표현에 가장 보편적인 신변품으로 정착하였다.

34) kohl은 화장먹인데 안티몬의 분말을 아라비아 여인들이 눈언저리에 검게 칠하는데 쓴다.

35) 봄베이 지방의 명

36) 코걸이.

37) 코걸이 체인.

38) 이마 한가운데 하는 장식줄과 달모양의 펜던트.

39) 얼굴 양쪽의 이마위에 늘어뜨리는 장신구.

인도의 전통 복식에는 하의부터 감아서 상의까지 올라오는 사리가 있고 그 안에 입는 짧은 상의인 초리가 있으며 인도를 대표하는 남성들의 머리에 감는 터번이 있다. 화장법으로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눈 주위에 검게 칠하는 특징이 있고 얼굴이나 몸에 악세사리를 즐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헤어스타일은 간단하게 하나로 묶거나 뒤로 뺏아 길게 늘어 뜨린다. 문양에는 페이즐리 문양과 망고 문양 등이 있다. 현대 패션쇼에는 이런 인도의 전통 이미지를 다양하고 조화롭게 잘 응용하여 표현되고 있다.

3. 21세기초 패션쇼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패션쇼에서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의상을 기준으로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중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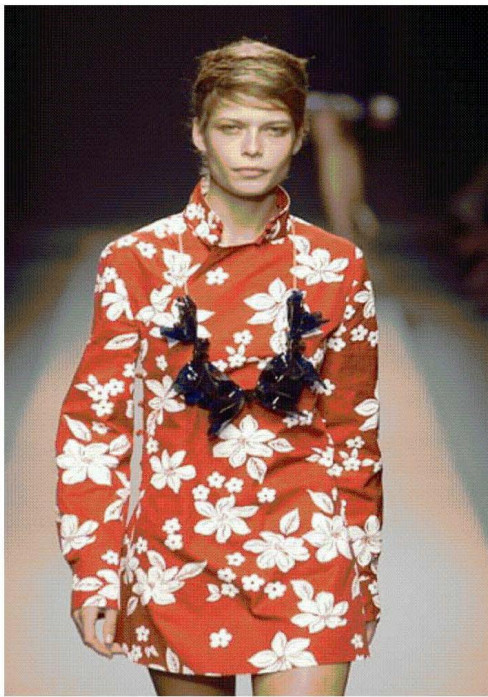


<그림 24> 알렉산더 맥퀸, 03, F/W(<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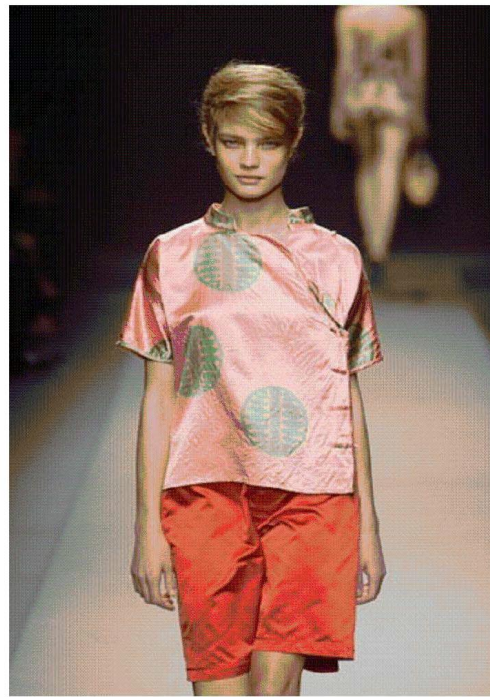
파리 컬렉션에 선보인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696~)의 2003년 F/W 컬렉션 작품인 <그림24>는 전체적으로 중국풍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상에서는 차이나즈풍의 스탠드칼라에 투피스지만 타이트한 실루엣에 중국의 대표색인 붉은색의 형태를 한 치파오의 변형이다.

메이크업은 중국 경극의 하얀 피부 표현에 붉은색 볼터치를 했다.

헤어는 꼬아리를 틀어 정수리 부분에 머리를 올려 묶은 고계형식의 머리 모양이다.



<그림25>미우미우, 03S/S
(<http://www.firstview.com>)



<그림 26> 미우미우, 03S/S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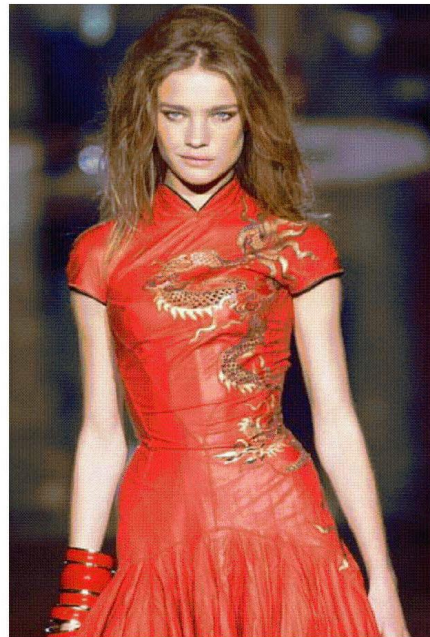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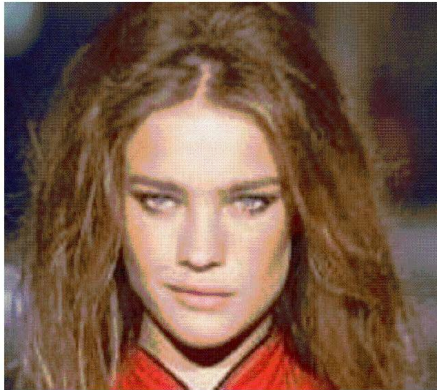
밀라노 컬렉션에 선보인 미우미우(Miu Miu)의 2003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 25>는 차이나즈 레드(Chinese Red)에 플라워 프린트, 차이나즈칼라, 사선 여밈과 매듭단추를 한 치파오 스타일의 원피스이며 <그림26>는 만다린 칼라에 사선 여밈과 매듭 단추를 응용한 상의를 표현하고 있다.

메이크업에서는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표현했고 헤어는 옆머리를 앞으로 다 넘겨서 부풀렸다.



<그림 27>피에르 발망, 03 S/S,
(<http://www.firstview.com>)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피에르 발망(Pierre Balmain)의 2003년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27>중국전통의 쿨리햇과 만다린록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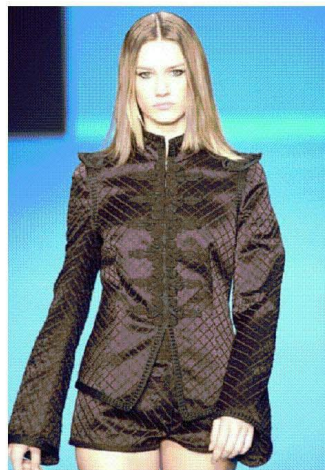
<그림28>로베르토 카발리, 03 S/S, (<http://www.firstview.com>)

밀라노 컬렉션에 선보인 로베르토 카발리(Roberto Cavalli)의 2003년 S/S컬렉션 작품인 <그림28>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용 문양을 붉은색 의상과 대조적인 금사를 사용하여 더욱 부각시켰다. 차이나이즈 스탠드 칼라와 몸매를 드러내는 가죽 원피스로 중국풍을 확실하게 표현했다. 메이크업에서는 직선적인 일자눈썹과 인도풍의 스모키한 새도우가 동양풍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29>로베르토 카발리, 03 S/S,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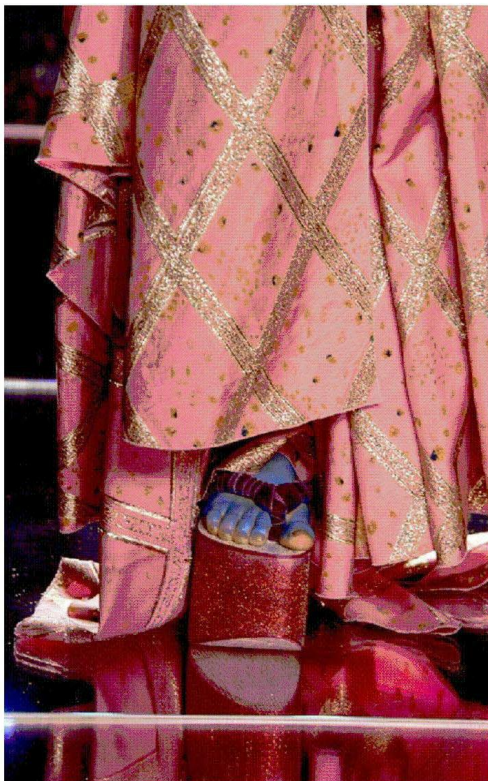
또 하나의 작품인 <그림29>은 만다린 칼라에 사선 여밈 형태의 변형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용무늬 프린트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30>안드류 쥘엔, 03 S/S (<http://www.firstview.com>)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안드류 귀엔(Andrew GN)의 2003년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30>은 목까지 올라오는 만다린 칼라에 자수로 처리된 여밈 장식과 매듭단추는 중국풍이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내추럴 하지만 눈 주위를 어두운 색으로 강하게 표현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인도 여인들이 즐겨하는 화장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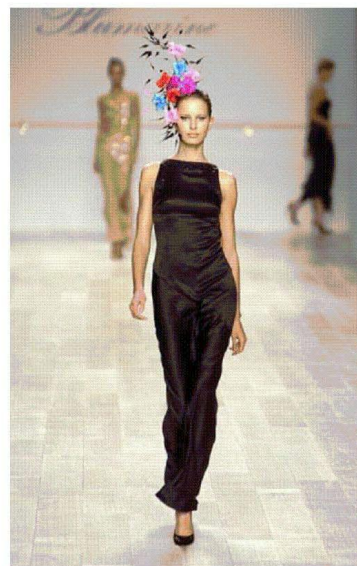
<그림 31> 존 갈리아노, 03 S/S (<http://www.dongahtv.com>)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존 갈리아노(Jhon Galiano, 1960~)의 2003년 S/S 컬렉션의 작품인 <그림31 >은 의상이 빅 사이즈의 중국풍 의상과 일본의 조리를 응용한 샌들을 표현하였다.



<그림 32> 블루마린 03 S/S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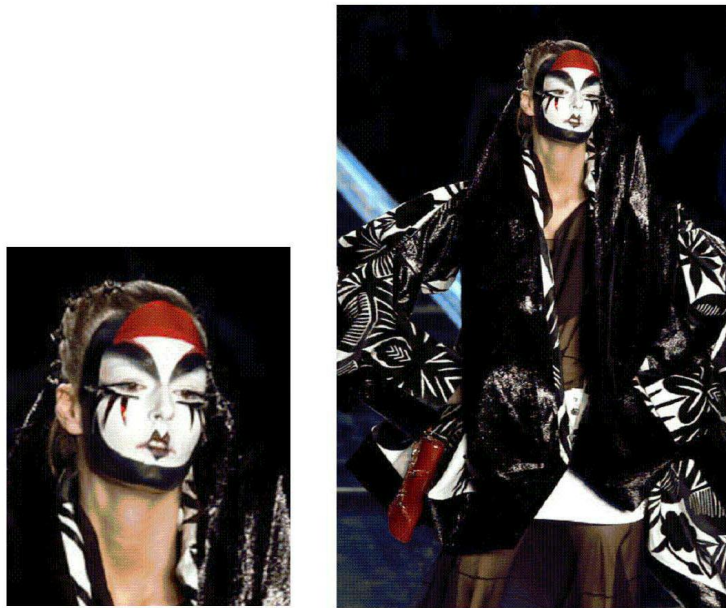
블루마린(Blumarine)의 2003년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32>는 스탠드 칼라에 사선 여밈 스타일의 중국풍 상의를 표현했고 메이크업은 눈꼬리를 강조한 경극의 느낌이며 헤어는 중국의 대표 머리모양인 고계형의 머리를 변형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림 33> 블루마린 03 S/S (<http://www.firstview.com>)

<그림33>은 치파오 스타일의 변형된 원피스다. 메이크업은 눈꼬리를 강조한 경극의 화장법이고 헤어는 고계형 머리에 중국 여인들이 꽃을 올린 대립시를 응용한 스타일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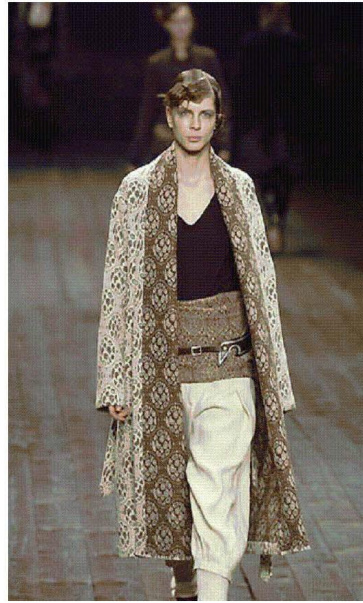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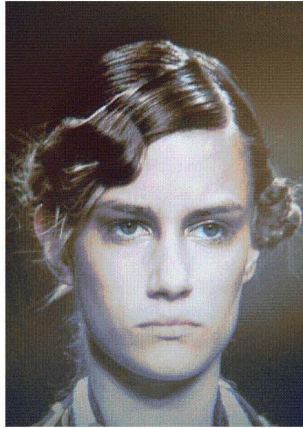
2) 일본풍



<그림 34> 크리스찬 디올, 03 F/W
(<http://www.dongahtv.com>)

파리 컬렉션에 선보인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2003년 F/W 컬렉션 작품인 <그림 34>는 의상에는 오버 사이즈가 특징인 기모노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코트와 꽃과 나비 등 자연 문양을 흑백대비로 표현했다.

메이크업은 일본 전통극인 가부끼의 백색 얼굴에 작게 오므린 듯한 인커버 입술에 검고 눈썹이 특징적인 화장을 응용했다.



<그림 35> 드리스반노튼 02 F/W (<http://www.firs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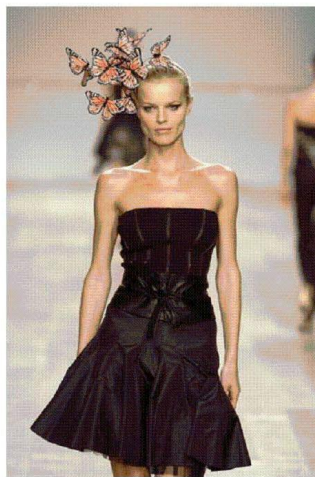
파리 컬렉션에 선보인 드리스 반 노트(Dries Van Noten)의 2002년 F/W 컬렉션 작품인 <그림35>는 일본 기모노의 특징인 오버 사이즈 실루엣의 코트에 허리에는 오비를 한 후 오비지메를 맨 전통적인 일본풍을 표현했다.

메이크업은 직선적인 굵은 눈썹과 오렌지톤의 자연스러운 색으로 표현했다.

헤어는 양쪽으로 갈라서 묶어버린 쌍계머리를 변형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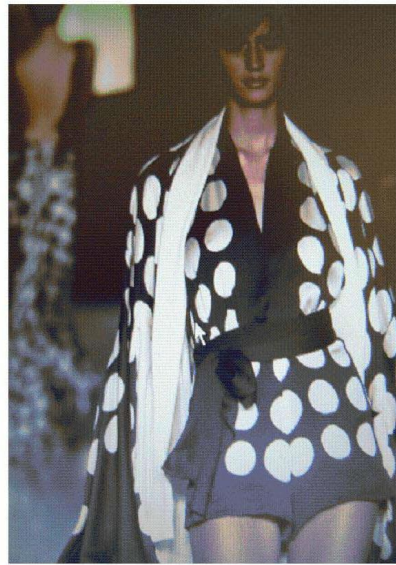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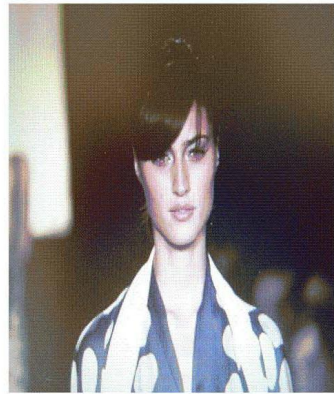


<그림 36> 블루마린, 03 S/S, (<http://www.firstview>)



<그림 37> 블루마린, 03 S/S, (<http://www.firstview>)

밀라노컬렉션에 선보인 블루마린(Blumarine)의 2003년 S/S컬렉션 작품인 <그림 36>은 기모노 형식의 자켓에 오비와 오비지메로 일본풍을 표현했고 <그림 37>은 허리에 오비형식의 가죽끈을 묶어서 일본풍을 표현했고 화장은 눈꼬리를 올린 경극식 화장을 했다. 머리에는 동양의 느낌을 주기위해 나비를 장식했다.



<그림 38> 도나카란, 03 S/S (<http://www.firstview.com>)

뉴욕컬렉션에 선보인 도나카란(Donna Karan,1948~)의 2003년 S/S컬렉션 작품인 <그림38>는 블랙 앤 화이트의 세련된 새틴 기모노형태의 미니 가운과 미니 쇼츠이다.

블루그레이 컬러계열의 스모키한 아이컬러와 눈매를 또렷이 강조한 메이크업은 인도풍을 나타내고 분홍빛 입술에서 동양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39> 장 카샤렐, 01 S/S (<http://www.firstview.com>)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장 카샤렐(Jean Cacharel, 1939~)의 2001년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39>은 일본풍 풍경화 프린트에 오비와 오비지메를 표현했다. 메이크업에는 약간 창백한 얼굴에 붉은 색 볼터치로 중국적인 느낌이다. 헤어는 뒤로 하나로 묶어서 동양적인 느낌을 더해 주었다.



<그림 40> 구찌, 03 S/S (<http://www.firstview.com>)

밀라노컬렉션에 선보인 구찌(Gucci)의 2003년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40>는 일본풍의 꽃무늬 프린트 소재를 사용한 차이나이즈 스탠드 칼라의 미니 원피스에 기모노풍의 코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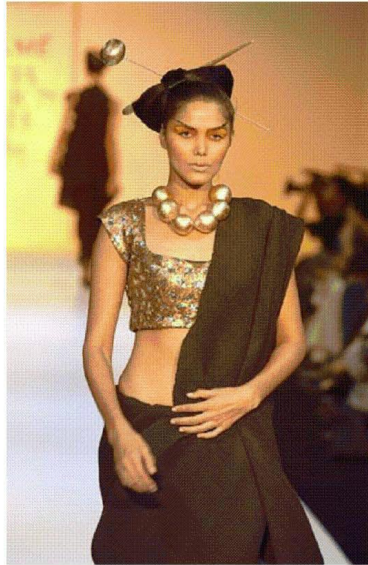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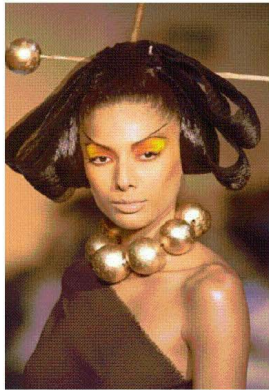
메이크업은 직선적인 중국풍 눈썹을 하고 있다.



<그림 41> 코시노, 00 F/W ([http://: firstview.com](http://firstview.com))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코시노 준코(Koshino Junko,1939~)의 2000년 F/W 컬렉션 작품인 <그림41>은 기모노 형식의 자켓에 오비와 오비지메로 일본풍을 표현했다. 메이크업은 중국 경극의 하얀피부 표현에 눈주위와 볼까지의 붉은색 표현을 응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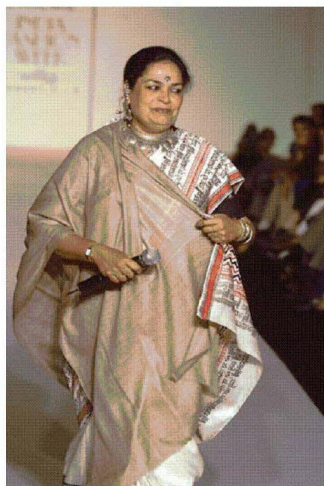
3) 인도풍



<그림 42> 키모노, 03 S/S (<http://www.firstview.com>)

런던컬렉션에 선보인 키모노(Kimono)의 2003년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42>은 인도 전통 의상인 초리와 사리를 표현했다.

메이크업을 직선적인 느낌의 눈썹과 눈 주위에 새도우를 펴 바른 형태로 중국 경극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머리와 목에 금속이로 만든 악세서리를 사용해 인도풍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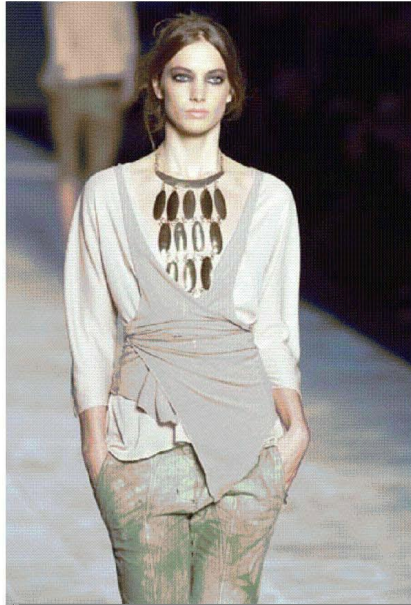
<그림 43> 키모노, 03 S/S
(<http://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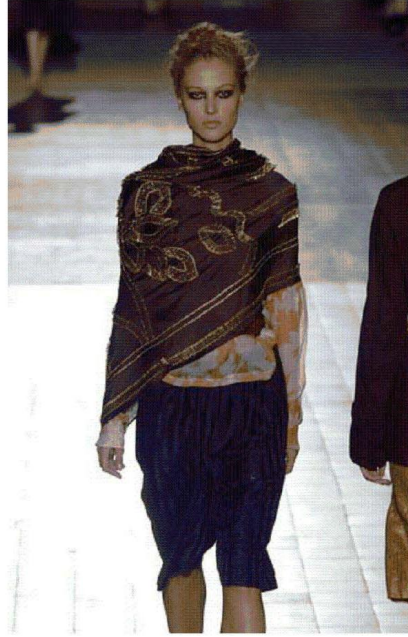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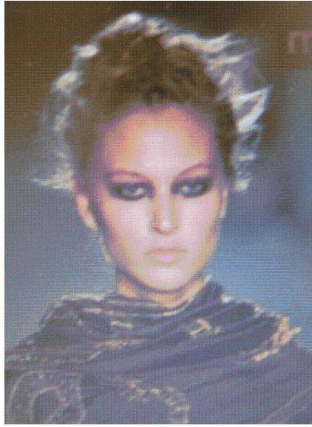
<그림43>은 사리를 두르고 이마에 홍점을 찍고 금속 장신구를 한 인도 전통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림 44> 존 갈리아노, 03 S/S (<http://www.donghtv.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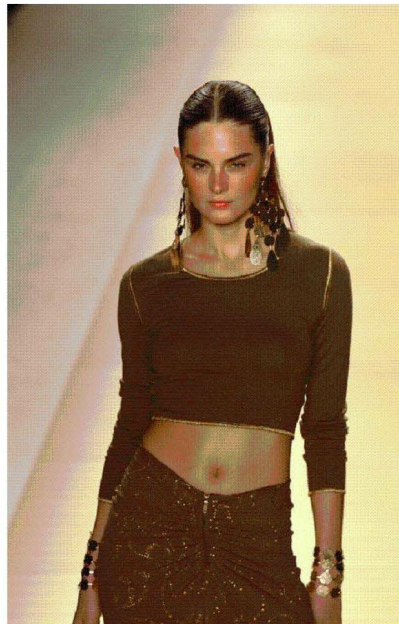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존 갈리아노(Jhon Galiano)의 2003 S/S 컬렉션 작품인 <그림 44>은 사리를 표현한 의상과 경극적인 느낌의 화장에 얼굴에 한 금속 장식은 인도적인 느낌을 보여준다.





<그림 46> 드리스반노튼 03 S/S (<http://www.firstview.com>)

파리컬렉션에 선보인 드리스 반 노트(Dries Van Noten)의 2003년 S/S컬렉션 작품인 <그림46>은 사리형태의 상의 표현과 화장에서는 눈주위에 검게 칠한 스펀지한 메이크업이 인도풍을 나타냈다.



<그림 47> 셀린느, 03 S/S, <http://www.dongahtv.com>

파리 컬렉션에 선보인 셀린느(Celine)의 2003년 S/S컬렉션 작품인 <그림47>은 인도의 전통의상인 초리와 가그라를 변형하여 의상에 표현했고 굵고 진한 눈썹, 앞가르마를 타 빗어 넘긴 머리형태와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그리고 메탈귀고리와 목걸이로 인도풍의 특징을 새롭게 변형하고 있다.

패션쇼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을 사진과 설명으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인도의 세 나라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사용하거나 변형시켜서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의 전통적인 특성들을 하나의 작품에 조화롭게 표현해서 오리엔탈리즘을 더 확실히 표현하기도 하였다.

Ⅲ. 결 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메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세계는 동양과 서양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이어져 오고 있어 문화와 예술전반에 여러 가지 혼성 문화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에 서양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나 흥미로써 느꼈던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의 정신과 가치관 등 문화 전반에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 초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기독교적 문화에 속한 서구인들에게는 동양 세계에 대한 동경의 한 방편으로 표현되어져 왔으며, 1060년대 이후에는 동양의 심오한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70년대에 이르러 외교정책, 중국의 문호개방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동양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현대 패션에 오리엔탈리즘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먼저 오리엔탈리즘을 대표하는 세 나라 중국·일본·인도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중국의 전통복식으로는 치파오가 있었고, 화장으로는 전통극인 경극에 표현되어 지고 있는 화장법이 있으며 헤어의 대표적 스타일에는 고계가 있다.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용문과 봉황이 있다. 중국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복식은 민속적이며 동양적인 요소가 많아서 오리엔탈리즘의 복식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전통복식인 기모노가 있고 화장으로는 무대극인 가부끼에 나타난 구마도리 화장법이 대표적이며 헤어는 올림머리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본은 의상형태보다는 염색과 화려한 색상에 독특한 창의성을 많이 표현하였다. 대표적 문양으로는 벚꽃, 매화와 새 문양이 있다.

셋째, 인도는 전통 복식인 사리와 초리가 있고 화장으로는 눈 주위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화장법과 악세사리를 많이 사용하며 헤어는 단순하게 풀거나 뒤로 땡아 늘어뜨리는 형태가 있다. 대표적 문양으로는 페이즐리 문양과 망고 문양이 있다.

현대 패션쇼에 다양하게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표현법을 살펴보면 중국은 치파오의 스탠드 칼라, 사선여밈, 매듭단추와 옆선 트임이 의상에 다양하게 변형되어 표현되었다.

일본의 기모노는 직선적인 실루엣과 오비와 오비지메가 의상에 많이 표현되었고 꽃, 매화꽃과 새 문양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인도의 사리는 감싸는 형태나 스카프를 이용한 사리표현이 많았고, 초리의 형태 역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었다.

메이크업에서는 중국의 경극이나 일본의 가부끼식 화장법이 응용되어서 많이 나타났고 인도 여인들이 눈 주위에 검게 칠하는 화장법은 스모키한 느낌의 화장으로 잘 표현되고 있었다. 헤어에서도 중국의 고계나 일본의 올림머리는 의상과 메이크업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되고 있었다.

연구 결과 아직까지 패션쇼에서는 의상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며 의사의 전체적인 조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메이크업과 헤어는 별도의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이미지가 현대 패션쇼에 표현된 방법은 동양의 의복 형태를 현대 패션과 접목시켜서 나타내고 전통성과 민족성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재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메이크업 역시 동양풍의 제한된 테마에만 맞춰 표현되지 않고 다양한 응용과 이미지 확장 등 현대적이고 한 차원 상승된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해진 형태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변형과 조화로 현대 패션에 맞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변형된 의상, 메이크업, 헤어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하나의 통일된 오리엔탈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이 나타나게 된다.

현대패션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은 인간 중심적이며 자연친화적 이미지로 동양의 평면적인 형태와 다양한 색상, 전통성을 고수하면서 서양미와 조화시켜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패션을 보여 주었다.

21세기는 많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여 적절히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많은 문화 중에서 오리엔탈리즘이 선두가 되어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New Orientalism이 형성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 본다.

참 고 문 헌

- 김미화, 가자! 세계로 Japan, 서울: 문화사, 2000.
- 덩컨 히스, 낭만주의, 이수명역, 서울: 김영사, 2002.
- David Band,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1992.
- 마츠바라 사브르, 간추린 중국 미술의 역사, 김원동·한정희 외 역, 1998,
- 발레리 베린스탱, 무굴제국, 변지현 역, 서울: 시공사, 2001.
- 류다린, 중국의 성문화사, 노승현 역, 서울: 심산문화사, 2003.
- R.H.반 홀릭, 중국성풍속사, 장원철 역, 서울: 까치, 1993.
- 에드워드 싸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역, 서울: 교보문고, 1997.
- 우실화, 서양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문화바로알기, 서우리 소나무, 1997.
- 이재성역, 실크로드 역사와 문화, 서울: 민속사, 1994.
- 의상디자인연구회, 세계민족과 패션, 서울: 문화사, 1992.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 손경자, 중국복식 5000년, 서울: 경춘사, 1995.
- 크리스틴 구스, 에도시대의 미술, 강병직 역, 서울: 예경, 2004.
- 한명숙, 마피아주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2000.
- 한국문화보호재단, 한국의 무늬, 서울: 예맥출판사, 1996.
- 황춘섭, 세계전통복식, 서울: 수학사, 1997.
- Kari Groning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by Art, Thames&Hudson
Inc.N.Y., 2002.
- Peter Selz & Mildred Constantine, Art-Nouveau, NewYok, The Museum of
Modern Art, 1998.
- 곽태기·김은정,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나타난 토털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52권 5호, 2002.

김윤희,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0.

안현경 · 이귀영, “20세기 미용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한국미용학회지 제 3권 1호, 1997.

윤명자, “현대 패션의 오리엔탈리즘-80년대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임영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vol.30, 1996.

이영재, “오리엔탈리즘 복식 디자인 연구-고대 실�크로드의 문양을 중심으로-”,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2.

임복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3.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http://:www.naver.com](http://www.naver.com)

[http://:www.wasou.or.jp](http://www.wasou.or.jp)

[http://:www.in.yahoo.com](http://www.in.yahoo.com)

[http://: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http://:www.dongahtv.com](http://www.dongahtv.com)

[http://:www.modanews.com](http://www.modanews.com)

[http://:www.yahoo.com](http://www.yahoo.com)

ABSTRACT

Expressive Ways of Orientalism seen by 21st Century

Fashion Shows

- Based on Collections since Year 2000

Lee, Yeon Soon
Majorin Make-up · Stylis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Orientalism appeared on modern fashion includes various elements along with trends of the times and arts. It has been grown researches and interests on oriental thought and philosophy due to active cultural movements to go back to the origin of mankind since 1960s.

With such atmosphere, mysterious and exotic Orientalism has been expressed many collections in modern fashion shows. Traditional images of China, Japan and Indian, most representative countries among them, would be examined and then various expressive ways of Orientalism appeared on collections since year 2000 analyzed and studied.

As a method of study, concept on Orientalism and Orientalism expressed on fashion shows since year 2000 would be studied, followed by analysis on traditional images of China, Japan and India in costume, make-up, hair-style and decoration parts.

For materials of a literary study, books and precedent thesis related to histories of fashion, paintings, music and arts were used.

It examined based on oriental look expressed on collections since year 2000 to analyze expressive ways of Orientalism appeared on fashion shows.

By country, China, Japan and India, it classified costumes and analyzed how make-ups and hair styles were introduced.

In modern fashion shows, it includes even ornaments for all over human body from top to bottom, which pursues a general combination of total fashion. The concept of total fashion has been characterized and so make-ups and hair styles are to weigh on total fashion far more than before.

Orientalism reflected on modern fashion has human-centered and friendly environmental images to show mixed and creative fashion by sticking to lineal forms, various colors and tradition, while harmonizing western beauty.

Application and significance of Orientalism were examined based on results of expressive ways of Orientalism appeared on fashion shows through this study with a hope of a birth of new Orientalism because there will be more detailed and varied cultures appeared as we move to the end of 21st century.